한라시론



오 윤 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동네 거버넌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과제

사회보장 영역에서 '동네'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개인 차원에서 가족과 사회적 연결망이 위치할 뿐 아니라, 교육, 생활 등이 이뤄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적·물리적 단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역(동네), 주민 참여, 주민 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정책 기획 및 집행 시 민관 협력과 거버넌스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

지역사회의 가장 하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에도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을 위한 동네 거버넌스의 핵심 조직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하고 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 제41조 제2항과 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를 두고 설치됐고,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로 4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지역의 사각지대 발굴과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은 올해 7월 말 기준 2개 행정시 43개 읍면동 중심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216명(평균 약 28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공적 지원 연계는 19.2%인 반면 민간자원 연계율은 75.5%로 나타나 동네를 기반으로 한 민간부문의 사각지대 발굴 활동,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도연합회가 출범했다. 이는 그간 행정시 단위 협력체계에서 도 단위 지역복지 현장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향후 연합회는 개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정책 발굴과 건의까지 이어지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고립은둔, 자살, 소득취약계층, 고령화, 1인가구 등 사회보장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을 지켜주는 민간 안전망이자 동네 거버넌스로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 위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동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보장 전문조직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사설

칭다오 항로 새 협약 불구 '밑 빠진 독' 여전

제주도가 중국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이는 새로운 협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새 협약을 맺어도 제주도가 여전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 감면도 감수해야 돼 혈세낭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취항 당시 중국 화물선에 연간 최대 73억원, 3년간 최대 219억원을 손실보전비용으로 지급하는 협정을 맺었다. 지금까지 이미 76억원을 지급했다. 혈세낭비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중국 측과 재협상을 벌여 새로운 협약안에 합의했다. 새 협약의 주된 내용은 손실보전금 규모 축소와 항로 확장 노력, 위약책임 상호주의 원칙 반영 등이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연간 최대 73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협약 기간의 지원 총액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재정부담이 100억원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문제도 해결됐다. 새 협약으로 제주도가 부담하는 재정은 3년간 최대 219억원에서 173억원으로 46억원이 줄어든다. 문제는 기존 협약 체결 시 제주도가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패널티로 교부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에 그쳐 매년 50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된다.

결국 새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재정부담은 여전하다.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 최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다. 칭다오 항로가 '밑 빠진 독'이 되지 않기 위해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또 정부의 교부세 감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중앙 절충도 강화해야 한다.

교황 방문 추진·세계청년대회 협력 주목

제주도와 천주교 제주교구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에 맞춰 교황의 제주 방문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제주도의회와도 소통하며 교황 방문 건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황의 제주 방문 추진은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특히 4·3 당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학살터에 세워진 중문성당 부지에 '치유와 평화의 기념성당'을 새로 짓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완공 목표인 이곳을 방문해 제주가 걸어온 화해와 평화의 여정을 전 세계에 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2027년 8월 열리는 가톨릭 청년 국제 행사인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각국의 청년들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종교 행사를 넘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축제의 장으로 세계 무대에서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한다.

제주에서도 이 대회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세계 청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대회에 앞서 내년 7월 29일부터 5일 동안 해외 가톨릭 청년들이 홈스테이 등으로 제주에 머물며 제주 청년들과 교류하는 제주교구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참가 예정 인원은 24개국 약 2000명에 이른다.

이에 제주도는 교황 방문 추진만이 아니라 제주교구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천주교계와 협력한다. 세계 청년들이 제주와 만나며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쪼록 세계청년대회 제주교구대회 등이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준비되길 바란다.

열린마당

눈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겨울 안전



김 승 환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겨울철 눈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도로 안전이다.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더라도 도로가 얼어붙어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덕면에서는 동절기를 앞두고 제설차량과 살포기 등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제설자재 비축상태와 주요 도로의 취약구간을 확인하는 등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다.

눈이 내리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제설 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을과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기상상황과 도로 여건을 신속히 공유하는 협업이 중요한 이유다.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강설이나 도로 결빙이 예상될 때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내 집과 점포 앞의 눈을 함께 치우는 작은 실천 역시 지역 전체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눈이 내린 뒤의 신속한 대응만큼 중요한 것은 눈이 오기 전의 철저한 준비다. 올겨울에도 행정과 주민이 함께 대비해 사고와 불편을 줄이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겨울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 마약 유입 막는다… 대응체계 점검

19개 기관 합동 대책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도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류 유입 차단부터 예방, 중독자 치료·재활까지 기관별 대응방안을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불법 마약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유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등 분야별 추진계획도 함께 점검.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불법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마약류 유입 차단과 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신설학교 개교 준비 점검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제주첨단초·중학교, 서빛중학교, 제주미래고등학교 등 신설학교 3곳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행정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개교종합점검단'을 운영해 왔으며, 4일 진행한 현장 점검에선 학교별 공사 진행 상황과 통학 여건을 직접 확인하며 통학로 도로 정비 상태와 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서빛중) 일정 등도 중점 점검.

도교육청은 "미흡한 사항은 개교 전까지 보완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내년 3월 안전한 환경에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김지은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은희(1953년 6월 20일생) 2026. 8. 6. 사망
최후주소: 제주시 구좌읍 덕천남2길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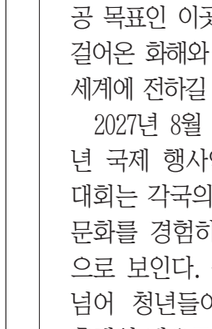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는 공고일 부터 2개월 이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ㅇ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6느단 488 상속한정승인
ㅇ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6. 10. 27.
ㅇ 망 김은희의 상속한정승인자 및 신고장소
안상봉(1944년 12월 25일,
주소: 제주시 구좌읍 덕천남2길 43)
신고장소: 제주시 구좌읍 덕천남2길 43
ㅇ 공고기간: 본 신문공고일로부터 2개월
ㅇ 신고방법: 위 신고장소로 우편제출

2026. 11. 5.
상속한정승인자 안상봉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ㅇ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ㅇ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ㅇ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 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억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조정웅(1942. 09. 30. 생)
• 최후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1길 2. 301호(이도2동)

상기자는 2026년 7월 1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 2026느단44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87, 112동 1204호 (삼양이동 엔에이치에프제주삼화1단지)

2026년 11월 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조제호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